

환영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매일 정오 12시는 온 성도들이 성전 건물 이전을 위해 5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달의 캠페인 - 영적인 삶은 교회와 함께

창립주일

· 교회창립 16주년인 7월 12일을 온 가족과 함께 하는 뜻 깊은 주일로 지키려 합니다. 이날만큼은 타교회에 다니는 가족들도 초청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16주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안내: 민광호, 김광영, 청년부. 예배 안내: 2, 3여, 4남선교회

협력

· 창립주일에 동참할 가족 명단을 알려주시면 예배 후 식사교제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역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 단기선교 중인 선교팀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돌아오도록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모임

· 예배 후 각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월례회순서: 찬송, 기도, 의논).

협력

· 창립주일 준비를 위해 본당과 중고등부실에 사진전시와 여러 준비를 위해 일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난 교회 역사를 살필 수 있는 사진이나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는 성도들은 잠시 제출바랍니다(수요일까지 교회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전시물:역대주보와 역대요람 전시, 행사사진, 칼럼 2집등, 담당: 박덕철 장로)

수요예배

· 이번달 수요예배 주제는 기도입니다. 수요 성경 본문을 통해 기도의 참된 의미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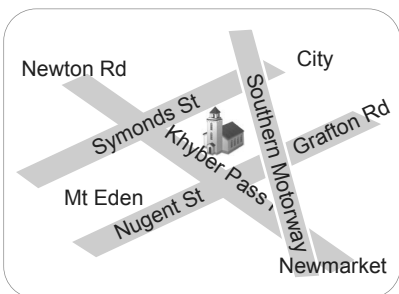
교우소식

· 귀국: 아동부 교사 황진주 자매가 7월 9일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 이사: 유현남(손기영 성도)집사 2/8 Harkin Close Albany 전화 442-5747

새벽기도회

· 매주 금요일 5시 5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 찾아 오시는 길



■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주일예배 주일 PM 1:00
청년모임 주일 PM 3:00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아 동 부 주일 PM 1:00
중고등부 주일 PM 1:00

■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 이 태 한
부 목 사 : 심 창 진
부 목 사 : 이 성 철

■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2015년 표어

거룩 (롬12:1), 부흥 (마5:8), 나눔 (잠11:24,25)

Making Disciples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선교적 제자를 세우는 교회

Preparing Next-generation 교회학교를 일으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Mission Work 선교와 전도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Serving Neighborhood 섬김과 나눔을 통해 이민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



2015년 7월 5일 주일 17권 27호



해/외/한/인/장/로/회
갈보리교회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www.calvary.org.nz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목사

찬 양	주일 찬양단
※ 예배로 부름	시편 105:1-3
※ 찬 송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279장. 인애하는 구세주여
대 표 기 도	박덕철 장로
성 경 봉 독	로마서 1:14-15
찬양대 찬양	내 기도하는 그 시간/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다시 듣는 복음/이태한목사
찬 송	544장. 울어도 못하네
헌 금 기 도	인도자
교 회 소 식	인도자
※ 응 답 송	여기에 모인 우리
※ 축 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청년 모임

오후 3시
소그룹 나눔과
성경공부
기도 / 황진주 자매

수요 예배

찬 양	수요 찬양단
기 도	김명춘 사모
성경봉독	열왕기하 20:1-11
설 교	참된 기도의 의미 /이태한목사
광 고	인도자
찬 송	365장. 마음속에 근심있는 사람
주 기 도	다같이

금주의 기도제목

1. 성년을 향해 발돋움하는 교회가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해 더욱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펼치도록.
2. 창립주일을 위한 여러준비에 온 성도들이 자원하여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3. 여러가지 어려운 삶의 정황으로 고통 중인 성도에게 해결과, 비자와 영주권 문제에 봉착한 성도들에게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7월 새벽기도회 본문

- 7월 10일: 열왕기하 17:13-23 죄와 가까이하면 죄에 물들게 됩니다
- 7월 17일: 열왕기하 19:14-28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 7월 24일: 열왕기하 22:12-20 납작 엎드리면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 7월 31일: 열왕기하 25:18-30 죄인의 소망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선교와 증보기도

1년만에 다시찾은 삼마 마을에 온통 어둠이 짙게 깔린 저녁무렵에 들어섰기에 태풍으로 달라진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코끝으로 다가오는 정겨움은 고향못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마을을 돌아보니 그렇게 울창하고 더위에 지친 사람들의 그늘막이 되어주던 대부분의 망고나무는 병치머리를 숏 카트(Short cut) 한 여인네의 머리모양 원기둥과 몇몇 가지만 남긴채 말끔하게 잘라져 있었습니다. 이유인즉, 태풍에 시달린 나무는 병충해에 약하고 지쳐있어서 그 자른 나무가지들 장작처럼 쌓아서 태우면 병충해도 막고 태풍으로 지친 나무가 다시 기운을 낸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네 조상들이 가로수나 과수나무에 벗짚으로 겨울내내 싸매었다가 이른 봄에 태우는 슬기와 같았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집 10채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중에 두 채는 지붕만 날아가고 나머지 8채는 집 전체가 날아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중에 삼마 교회의 리더중 한명인 덕순의 집도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농작물은 먹을 수 없게 되어 이들의 삶은 무척 힘들어 보였지만 행복지수 1위를 경험한 나라답게 낙천적인 성격은 그들의 시름을 달래는 또 하나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운 나라 사람들의 특장중 하나인 근성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준비한 페인트 칠 작업을 오후 2시경부터 시작을 했는데 두 시간 정도 지난 오후 4시경이 되자 오늘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더이상 할수가 없고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날 날씨가 그렇게 더운 것도 아니고 우선 실내만 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한심하게 보이거나 안타깝다는 동정심보다는 그것이 저들을 지켜온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짧은 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선교팀 10명을 두고, 삼마의 식구를 두고 이른 새벽 공항을 향하는 저의 마음은 내내 아쉬움과 소망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계신 성도들에게 감사함을 전해드립니다.

기도제목

1.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2.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도록.

◎ 7월 교회일지	◎ 7월 예배봉사가	◎ 기도문서
월샅기도회: 7월 1일(수요일) 창립감사주일: 7월 12일 (주일) 선교보고주일: 7월 26일 (주일) 공동체주간 수요예배: 7월 29일(수요일)	예 배 안 내: 최득수/정옥자 새신자안내: 김수원/최희숙/ 박혜숙/이정인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윤경례/박제란 김명옥/장미선	이번 주 애찬: 김기영 사모 다음 주일: 김철재 집사 다음 주일 청년부: 임대원 형제 7월 12일 수요: 박후임 집사 7월 12일 애찬: 이경재 집사 7월 19일 주일: 박병민 장로 7월 19일 청년부: 김정훈 형제